

기초부터 배우는 성경 공부

제22과 예배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계시한다. 여기 경배하라는 말과 예배하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프로스퀴네오(**proskunevw**)이다. 신약성경에 명사는 기록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은 신약성경에 60회 사용되었는데 주로 경배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말은 프로스, 곧 ...에게, 또는 ...을 향하여 꿇네오 곧 입 맞추는 뜻이다.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을 향하여 손을 모으고 손에 입 맞추는 것과 같이 머리를 숙이는 자세이다. 이 말은 구약성경에 경배라고 가장 많이 사용된 말 사하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이다. 사하(hj;v)는 엎드려 절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창조주를 지극히 존중하는 태도로 엎드려 절하는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학자는 최고의 가치 앞에서 갖추는 태도라고 하였다.

1. 경배의 대상

[시29:2]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99: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96: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레26: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목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20:4-6]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사람이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여호와라 이름 하신 하나님뿐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가장 많이 책망하신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책망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우상숭배를 책망한 것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 우상숭배는 가장 악한 죄이다. 왜냐하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자녀와 같은 것이다. 그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는 근본적으로 악한 자이다.

2.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시99:5]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시99:9]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경배할지어다 대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시22:27,28]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니 28 나라는 여호와 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재심이로다.

[계4:10,11]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11 우리 주 하나님이며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느9:6]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시86:9]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시95:6]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 이상의 말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들을 제시한다.

1) 여호와 하나님은 열방의 주재이시기 때문이다.

2)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3. 왜 창조주를 경배해야만 하는가?

[욥38: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고전4:7]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

[행17:28,29]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요1: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엡6:1-3]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신32:6]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나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출21:15]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21:17]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20:9]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부모를 치든지, 저주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정신이며 행동이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취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들의 아버지이시다. 자녀가 인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도덕과 윤리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존재와 생명에 대한 감사와 경외이다.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 감사하고 경외해야 하겠는가. 그 감사와 경외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부모와 창조주 경배를 십계명 중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사람 사랑하는 둘째 부분의 첫 계명으로 두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면 창조주 경배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이다.

4. 창조주를 경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느9:3] 이 날에 낮 사분지 일은 그 처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올법 책을 낭독하고 낮 사분지 일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출4:31]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34: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레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와 안식일이니라.

[고전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 개인 가정 예배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것은 예배에 중요한 것이다.

성회로 모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모여서 예배할 때 포함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렇다.

1) 모일 것. 2) 안식일에 성회로 모일 것. 3) 찬송. 4) 말씀 읽고 듣기. 5) 회개와 자복.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회개 자복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에 포함되어야 한다.

* 모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경배의 이유들을 생각하며 예배할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가 아니면 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겸손히 시인하는 정신이다.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임을 다시 고백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거룩하게 살기로 마음을 바치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간구하며 의지해야 한다.

5. 두 가지 예배

성경에 나타난 예배를 크게 나누면 공중예배와 생활예배가 있다.

1) 공중예배

4번에서 찾은 성경구절들은 공중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이다. 공중예배는 잘 정돈된 순서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있어야 한다.

[고전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전14:40]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 공중예배에서의 순서와 질서를 잘 지켜야 할 것을 권고한 말씀이다. 예배가 정돈되고 아름답고 평안이 가득해야 한다.

“적당하게 하라”는 말은 “유스케모노스(eujschmovnw)”인데, 예의 바르게, 점잖게, 정직하게 등의 뜻이

다. 공중예배의 분위기는 이 권고대로 되어야 할 것이다.

[대상16:29]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96: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시29:2] 여호와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110:3]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공중예배는 순서가 있다. 순서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질서 있게 잘 짜여서 예의 바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공중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복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답게 아름답고 단정하게 정장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교회의 공중예배 순서는 유대인들의 회당 예배순서에서 빌어서 발전한 것이다.

예배순서에는 순서의 신학이 있다. 순서를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 신학을 이해하는 것이 유익하다. 물론 꼭 그대로만 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어떻게 되든지 거기에는 성경적 합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곧 순서 신학이 되는 것이다.

예배순서의 첫 부분은 예배로의 부르심의 신학이다. 여기에는 목상기도와 송영과 말씀을 받을 준비로서의 invocation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에 임재 하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며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이다. 공동 신앙고백이 있다. 자신들이 경배하는 하나님께 그분에 대한 신앙고백과 신조에 대한 고백이 있다. 개신교에서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신앙내용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을 찬양하는 찬미가 있다. 그래서 첫 찬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를 하는 것이 예배 신학적이다. 찬미가에 있는 예배 찬미가 여기에 해당되는 찬미들이다.

다음은 회중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임재 하셔서 회중들의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주관하시도록 회중의 소원을 아뢰는 대표 기도가 있다. 찬양까지가 예배로의 부르심과 마음의 준비의 신학에 해당된다.

다음은 말씀 선포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 하셔서 당신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설교라고 한다. 설교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포이다.

다음은 마치는 순서인데, 마치는 순서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회중들의 반응과 각오를 나타내는 것이 예배순서 신학이다.

헌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한 반응을 나타낸다. 찬미는 베푸신 은총에 대한 감사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광고가 있는데, 이 광고는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서 한 주일을 살 것에 대한 내용이다. 즉, 방문, 구역 예배, 교회 행사 안내 등은 예배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생활로 실천하는 생활예배에 대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예배순서 신학이 있다. 예배를 맡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순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순서에는 순서의 신학적 의미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2) 생활예배

예배는 공중예배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행사를 하는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생활예배의 집대성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예배행사의 기초는 교인 개개인의 생활예배이다. 생활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공중예배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생활예배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

[롬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이다. 영적 예배라고 번역한 말은 옛 번역에는 합리적 예배라고 하였다. 원어는 “로기켄 라트레이안(logikh:n latreivan)”이다. 로기코스(logikov)는 말씀적인 이라는 뜻이다. 라트레이아(latreiva)는 섬긴다는 뜻이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사 드리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

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산 제사라고 하였다. 제사라는 말도 라트레이아이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한다.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9 옛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제 칠 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옛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 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이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일주일 내내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 옛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일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삶, 곧 산 제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생활예배에는 언어생활, 감정생활, 가정생활, 의복 생활, 식생활, 사회생활 등등에 하나님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들어있다.

[엡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골4:6]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루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행2: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1:19-21]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딤후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벧전3:7]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엡5:22-25, 28-3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됄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됄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30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민15:38-40]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39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와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딤후2:9,10]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10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레11:44-47]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45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46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47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벧전1:15,16]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딤후4:3-5]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4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고전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레19:18]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롬13:8-10]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9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 생활예배에 대하여 많은 사례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이상의 예만을 들었다. 그리스도인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성경 사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생활예배이다. 이렇게 생활예배를 올바르게 한 다음 공중예배에 참여할 때 공중예배가 참된 예배가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6. 공중예배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경험을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진정한 회개의 마음과 새로운 헌신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

[사6:1~8] 웃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라 6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제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하는 자의 태도와 상태에 대하여 잘 가르쳐준다.

- 1) 1~4절은 예배 때에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모습이다.
- 2) 5절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예배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회개하는 마음이다.
- 3) 6,7은 회개하는 예배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낸다.
- 4) 8절 상단은 회개로 사유함을 받은 사람을 사명으로 부르신다.
- 5) 8절 하단은 예배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명을 받는 것이다.

이상은 성전에서 행하는 예배 때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날 예배에서 이런 상태는 드문 것 같지 않은가.

7. 생활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중에 공중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뿐 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사1:12-17]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케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 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사66:3]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요2:14-16]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마21:12,13]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8. 예배 개혁

예수께서는 올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예배 개혁을 위하여서도 오셨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을 나타낸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종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될 것을 아셨다. 백성들은 의식의 의미에 대한, 적절한 교훈을 받음이 없이 무수한 의식을 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경배자들은 그들이 바치는 희생 제물이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희생 제물 되시는 분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쳤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분께서 인정과 존귀를 받으심 없이 서 계셨다. 그가 바로 헌물에 대한 지시를 주셨던 분이셨다. 그는 그 제물들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하셨다. 그는 이제 그 제사가 왜곡되고 오해되고 있음을 보셨다. 신령한 예배는 신속히 사라져 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을 그들의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하나도 없었다. 전혀 다른 예배를 확립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업이었다.”(소망157)

[요4:22-24]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 예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도록 하는 일을 행하셔야 했다. 당시에의 예배는 예배의 의미

를 모르고 의식만 행하는 예배였다.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은 “프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pneumati kai; ajlhqeiva/)”이다. 이것은 “영과 진리”라는 말이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해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가리킨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로 드리는 예배는 형식은 예배이지만 참된 예배가 안 된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롬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난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고 말씀하셨을 때에 드러내셨던 것과 같은 진리가 여기에 선언되어 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형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다. 이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열매이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납 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경배자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받아들여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다.”(소망 189)

*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올바르게 알고 예배하는 것이다.

[요4: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 알고 예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진리이다.

[요1:14-18]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확실하게 드러났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구약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드러져야 한다. 예수 안에서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후13:8]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상태로는 결코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굴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 복음의 진수이다. 바로 예배를 실현하는 사람이 되어서 예배해야 한다는 말이다.

9. 예배를 개혁할 때

예수께서 오셔서 일차적으로 예배를 개혁하셨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였다. 교회의 역사가 진행되어 교회에 사단이 틈타서 예배가 변질하게 되었다. 예언된 때가 될 때 예배 개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때에 개혁을 이루도록 인도하셨다.

[살후2:3,4]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4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 예배가 잘못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 할 것을 보시고 경고 예언을 하신 것이다. 이 우상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경배 받는 우상인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이다. 금은동철목석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살아 있는 사람 우상이다.

이런 일은 성경 역사에 이미 있었다. 그것이 다니엘 6장 메데 사람 다리오 왕을 한 달 동안 우상화한 사건이고, 에스더서에 하만을 우상화한 사건이다. 이것은 다 사람 우상이다.

역사적으로 때가 되면 교회 안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며, 이런 사실을 깨달을 때가 이르면 예배를 개혁할 때가 된 것이다.

[계14:6,7]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을 때 심판으로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다. 그것은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지 않으면 참된 예배가 안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안 되는 것이다.

세 천사의 기별을 예배의 측면으로 말하면 예배개혁의 기별이다. 남은 자손으로서 재림성도들은 예배개혁을 실현해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안식일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모르는 것이다. 여호와를 모르면서 여호와께 예배한다는 것은 우상숭배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겔20:20]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마12:8]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을 주장하신 말씀이다. 옛세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철일을 거룩하게 하여 안식하시고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다.(요1:1-3)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주인이라고 한 안식일에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러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진리를 밝히셨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것임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지금은 바로 예배 개혁을 이루어야 할 때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면서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이 예배는 생활예배와 공중예배로 이루어진다.

10. 예배와 인격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상생활적인 것과 신앙생활적인 것을 구별하신 것 같다. 옛세 동안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는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그러나 제칠일은 거룩하게 하셨다고 기록하였다. 좋다는 말은 선하다는 말과 같다.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이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이다. 그러나 안식일은 사람이 창조주를 경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 말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경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말이다. 사람은 예배하는 인격으로 창조된 것이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사람은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창조주 경배하는 것을 못하게 되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게 되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것을 다시 예배 인격으로 재창조하는 일을 하신 것이다.

[사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사43:21]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엡1:6,12]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12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 그리스도인 곧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 인격이 예배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생활예배를 성취할 것이다.

[요4: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눅18: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이런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예배의 인격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자.